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5. 20.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전심으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주님 손에 맡겨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코러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0장 1~8절

다 같이

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말씀 나눔 -----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 ----- 인 도 자

인간의 영적 질병 중 하나는 바로 '비교의식'과 '경쟁심'입니다. 내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의 것을 보며 불행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 모습을 보며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이 어떻게 영적 안목을 가리는지 보여주는 영적 무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자녀 출산 경쟁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비교의 죄를 돌아보고,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시기심은 영적 눈을 가리고 원망을 낳습니다.

본문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 남편 야곱을 원망하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남편의 사랑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식이 없다는 한 가지 결핍 때문에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는 라헬의 외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한 영적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이에 야곱은 화를 내며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것은 아내 라헬에게 영적 진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상(야곱)에게 영적 결핍의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영적 안목이 가려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생명과 환경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인간적인 수단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본문 3~6절 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라헬은 인간적인 꾀를 내어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라헬은 당시 사회적 관습(씨받이 제도)을 이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단' (심판하셨다, 억울함을 푸셨다)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와 경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조급함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